

선거철 무더기 행사... 장흥군 행정공백 우려

4·5월 축제·행사 12건...군수·지방의원들 선거전 몰두
공직기강 해이도...주민들 "민원 담당자 만날 수 없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흥군 산하에 무더기 행사와 단체장의 직무정지로 인해 공직 기강 해이가 우려된다.
8일 장흥군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를 2개월여 앞둔 장흥지역은 4월과 5월에 읍·면의 날 행사를 비롯한 12건에 달하는 축제와 행사가 몰려 본연의 군정업무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장흥지역에서는 지난 1일에 장평면과

회진면의 날 행사를 시작으로 20건에 달하는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9일과 10일에는 각각 관산읍의 날과 장동면의 날이 준비돼 있으며 11일은 대덕읍의 날, 15일은 부산면의 날, 18일은 안양면의 날, 21일은 용산면의 날 등 8개 읍·면의 날 행사가 몰려 있다. 여기에 15일에는 '정남진 전국 마라톤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또한 5월 1일은 '군민의 날', 3일부터 6

일까지 '기초개축제와 제암산 철축제' 행사까지 이어져 공무원들이 행사 분위기에 빠져 일부 지역주민들은 민원업무는 물론 조기발주 등 군정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현 김성 군수가 재선을 위해 이달 15일께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2개월여 동안 단체장이 공석이 되고 지방의회(군의회) 역시 대부분 현 의원들이 출마를 위해 선거전에 뛰어드는 바람에 군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 이모(69)씨는 "지난해 부터 이어온

가뭄을 대비 관정지원을 문의하기 위해 관련 부서를 수차례 방문했으나 관련 직원들이 출장과 행사장 참여를 이유로 상담을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며 "공무원들이 선거때만 되면 느슨한 자세를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를 두고 일부 공무원 사이에선 "지방단위에서 치러지는 축제나 행사는 국가적 규모가 아닌 만큼 연례적으로 치를게 아니라 지방선거에는 선거이후로 미루거나 보류시키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실효력을 얻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강진군 다산유적지 산뜻한 봄단장

강진군 다산기념관이 새봄을 맞아 다산초당을 비롯한 다산 유적지 일원에 산뜻한 봄단장을 마치고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8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다산초당 주변 언저리까지의 대대적인 청소와 초당입구에서 천일각까지 지역의 오솔길을 따라 늘어난 노후된 대나무 울타리를 말끔히 정비해 다산의 향취를 찾는 전국에서 온 다산수련원 교육생들과 관광객들에게 감흥을 주고 있다. <사진>
임준형 다산기념관장은 "2018 A로의 초대의 해를 맞아 다산초당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대대적

인 환경정비를 실시했다"며 "앞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다산공직관 교욱프로그램과 연계해 다산초당과 다산기념관을 전국의 관광명소로 육성해가겠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다산 정약용이 18년간 유배 생활을 하며 남긴 문화유산들을 콘텐츠로 제작해 '청림'과 관련해 청림한 인재양성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다산공직관 청림교육'과 '공무원 청림푸스(FU-SO)체험교육', '다산체험프로그램' 3개 과정을 상시 운영해 전국 공직자의 필수 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장흥군 우드랜드서 '건강힐링 금연캠프'

"청정 공기 마시고 금연 도전하세요."
장흥군은 지난 4일 편백숲 우드랜드에서 금연 희망자와 흡연관련 질환자 등 30명을 대상으로 '건강힐링 금연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건강힐링 금연캠프는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변화 유도과 주민 건강증진을 돕고자 마련됐다. 특히 편백숲 우드랜드에서 체험을 진행해 생활 속 스트레스에서 낮추고, 심신 안정과 면역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금연캠프 프로그램은 산림치유 체험과

간접흡연 예방 및 금연약물 교육, 금연성공 사례 발표, 편백소금집 체험, 목공예 체험 등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편백숲의 청정 공기 속에서 프로그램에 집중하며 자연스럽게 금연에 동참할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흥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직장인 금연 이동클리닉, 건강 힐링 금연캠프, 금연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건강생활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지난 4일 편백숲 우드랜드에서 열린 '건강힐링 금연캠프' 참가자들이 목공예 체험을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장흥수협 조합장 권위 상임이사 대행 체제로

장흥군 수산업협동조합장 권위로 관심을 모았던 조합장 선거는 상임이사가 직무 대행하기로 결정이 됨에 따라 치르지 않기로 했다.
장흥군수협에 따르면 지난날 31일 조합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공석이 된 조합장에 대한 보궐선거를 놓고 최근 이사회를 개최한 결과 장부기 현 상임이사(전무급)를 내년 3월 전국 동시 치러지는 농·수·축협 선거때까지 직무대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사회회의 이같은 결정은 동시 선거가 1년이 채 남지 않아 조합장 선거로 인한 행정적 낭비를 최소화 해야한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장흥군수협은 임·직원 27명과 조합원 3090여명, 자산규모가 1700여억원에 달하지만 수협중앙회로부터 지난 2010년부터 공적자금 지원을 받아왔다. 올해 들어서는 경영환경이 개선돼 '적기 시정조치조합'으로 지정돼 중앙회 관리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장터에 올려퍼진 그날의 함성...강진 4·4 독립만세 재현

지난 4일 강진군 강진읍 남포마을 3·1운동 기념비와 읍시장에서 '강진 4·4 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가 열렸다.
4·4 독립만세운동은 지난 1919년 강진 장남일 4월 4일을 기해 수천여명의 군중이 일제히 쫓겨난 날이다. 전남 지역내 최초이자 최대 만세운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재현 행사는 4·4독립만세운동기념비를 시작으로 현화와 분향, 독립의사 소개와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서 남포영농회(이영식·윤수일·이정구·이재의·이영록·민영복·박정남)가 강진만세운동 발굴과 계승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강진 4·4독립만세운동 유공단체로 강진군수 표창을 받았다.
남포영농회는 설화·책 등에서 강진만세운동 사실을 확인했고, 1992년 마을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기금을 모아 3·1운



지난 4일 강진 4·4 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 참가자들이 사회자의 선창에 따라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동기념비를 건립했다. 또 1994년부터는 추념제를 지냈으며 2005년부터는 강진지역의 중요한 역사를 보전하고 계승하기 위해 강진군과 광주지방보훈청의 후원을 받아 강진문화원 주관으로 매년 4월 4일 기념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역사적 자긍심을 갖고, 나라사랑, 민족사랑을 되새기는 강진지역의 중요한 역사를 보전하고 계승하기 위해 군민이 대동단결하고 군정 발전을 염원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영암군 보훈·참전 수당 2만원 인상

영암군은 4월부터 보훈·참전 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영광군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들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4월부터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 때월 15일에 지급하고 대상자 중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20만원도 지급하기로 했다.

수당 인상은 영암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해당자가 신청서, 유공자증 관련 증명서, 지급계좌 통장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지역 내 8개 보훈단체에 운영비를 각 300만원씩 올려 총사업비 1억 1600만원을 지원한다. 영암군은 또 월 남침전비 건립과 영암군재향군인회 부속건축물 신축,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위문품 지급, 영암군 지정 의료기관이나 약국 이용시 본인부담금 지원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영암=전봉헌기자 jbh@

영암군 군민 자율운영 공유주차장 조성

영암군이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을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군민 자율운영 공유주차장 조성사업에 나선다.
8일 영암군에 따르면 군민 자율운영 공유주차장 조성사업은 지역 내 건축예정인 빈 공터나 유휴부지의 토지소유자에게 무상 사용승낙(2년이상)을 받아 공유주차장으로 조성하고 토지에 대

한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지 선정에 있어 토지소유자의 토지제공(지목상 대지 또는 잡종지 등) 접수를 끝자로 접수된 토지 중 주차장로서 활용가치가 높은 토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되며, 지방정비 후 주차장 조성공사를 통해 군민에게 공유주차장으로 제공한다. /영암=전봉헌기자 jbh@

나주, 2층주택,사정상"급매"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집마당까지 차량 진입
- 광주에서 40분
- 보일러등 일부 수리 요함
- 시세 - ~~1억 1000만원~~
급매 - 6200만원
(2018년 4월 10일까지 완불조건)
- 문의. 010-3605-5000